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위의 논제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아직까지 그 누구의 답도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필자는 게임 산업의 인력에 있어서만큼은 달걀이 먼저라고 확신하며, 게임 산업 관련인들에게 더 나은 장기적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것을 염두에 둔 인재 전략을 세워나가기를 당부하고 싶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이 상

생각과 역할이 지금보다는 변화된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게임 산업 초창기(게임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의 게임 산업 1세대들은 비교적 소수의 인력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아마추어적인 열정으로 자신의 실력을 쌓아왔다. 이들은 대다수가 이것이 자신의 평생 직업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스포트라이트는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었던 세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게임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접하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자라온 많은 수의 사회 진출 대기자들이 이제는 취미로써가 아니라 자

더 실질적 인재로서의 발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검증된 인력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유행이나 베끼기, 또는 방관하는 전략으로, 타성에 젖어든 지금의 게임 산업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존 인력들의 노하우에 더해,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여러 엔터테인먼트(게임·애니메이션·인터넷 등)적 경험을 함으로써 기초 체력이 튼튼한 병아리들의 창의력과 끼가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

더욱이, 게임이 좋아서 게임 산업에 뛰어들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더욱 발전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기존 게임 인력들과 업체들의 성향을 봐서라도, 필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어느 철학자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닭이 먼저 입니까, 달걀이 먼저 입니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달걀을 낳으려면 어미닭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하려면 어미닭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균형 잡힌 사랑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한 상위 업체들과 그렇지 못한 업체, 처음부터 자본이 넉넉하게 출발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서로 퍼벌림식 하려고 하는 게임과 그렇지 못한 게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인력들과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력 문제는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 가장 신경을 써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게임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필자도 한때 같은 생각을 가졌었던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쓸만한 사람은 그냥 생기는 것일까. 그 쓸만한 사람은 원래부터 쓸만한 사람이었던 것일까. 그럼 그 쓸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게임 산업 발전에 있어, 현 업체들과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신의 미래를 배팅할 ‘직업’으로서의 게임 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피수혈로 미래 준비해야

그렇다면 현 산업 관련인들은 물론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회사로서의 일차적 목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달걀’들의 희망과 사회적 희망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적어도 묻지마식, 미구잡이식 인력 끌어들이기와 무조건 경력직만 구하려는 것을 지양하고, 달걀들의 창의성과 열정과 그들의 끼를 지켜 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기회를 줘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몇몇의 업체들, 대학, 그리고 정부에서 게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좋은 게임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글 최신만 크레모아 기획본부장